닛신보의 콤팩트사 “플랫 · 스핀”

콤팩트 · 얀은 유럽에서 최초로 발표되어 세계 방적업계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. 곧이어 일본에도 해외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콤팩트 · 얀이 조금씩 소개되어 면제품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. 그러나 일본의 면방업계는 묵묵부답(默默不答)으로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반응도 없었는데, 금년(2003년) 초, 드디어 도요보가 개발한 콤팩트 · 얀류(類)의 “와엔(和円)” 및 “프리모파인(Primofine)”을 발표하자, 봇물이라도 터진 듯이 여러 면방회사로부터 각기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콤팩트 · 얀과 같은 종류의 잔털이 극소한 실이 발표되었다.

한발 늦은 닛신보는 직영(直營)방직 “후지에다(藤枝)”공장에 “도요다자동직기”가 개발한 콤팩트 정방기 1대를 설치하고 시험생산을 추진한 결과, 시험생산에 성공한 콤팩트 · 얀류를 “플랫 · 스핀”이라는 가칭(假稱)으로 내년 춘하절 상품시장에 출시한다고 발표하였다. 일본 시장에서는 이미 외국에서 생산된 콤팩트사가 판매되고 있어, 앞으로 머지 않아 외국에서 생산된 여러 콤팩트 · 얀과 일본 내에서 개발된 각종 “콤팩트 · 얀류”를 실지로 사용하여 각종 제품을 만들어 본 다음에는, 많은 수요자들로부터 실의 특성이나 품질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.

닛신보의 니트 · 텍스타일과에서는 24수 단사, 30수 단사, 40수 단사, 40수 쌍사의 “플랫 · 스핀”사로 만든 니트포를 부드럽게 하는 신가공을 하여 수요자들에게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. 닛신보로서는 이 실로 짠 편성포가 20번 세탁에도 잔털이 별로 안 생기고, 실의 태가 뻣뻣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수요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. 이 실은 고급 캐쥬얼복이나 중고년(中高年)의 부인들이 여가 시간에 입기 좋은 여성복의 소재로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

있다.